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미얀마 연구는 최근까지 동남아 연구 중에서도 그 역사가 일천하고, 사회적 관심의 부족과 척박한 연구 환경으로 인해 전문 연구자 규모, 가용 자원, 연구 실적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미얀마 연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미얀마 연구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동남아 지역연구에 비해 연구실적 규모가 작고 주전공자가 극히 소수이며, 분야로는 정치·국제관계 분야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미얀마 연구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요구되며 연구 분야에서는 정치·국제관계 이외의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미얀마,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I. 머리말

지난 3년 동안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라면 단연 미얀마를 들 수 있다. 1962년 군부쿠데타 이후 2011년까지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했던 미얀마는 1988년까지는 사실상의 쇠국정책, 1988년 이후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이유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2011년 군부의 후견 아래 집권한 신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정치적 자유화로 대다수의 정치범이 석방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무엇보다 야당 민족민주동맹(NLD: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3년 하반기 국내학술회의(2013. 11. 22)에서 발표한 초고를 토대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자로서 좋은 코멘트를 주신 서강대학교 이상국 교수님과 사회자로서 유용한 정보와 참고문헌을 소개해주신 서울대학교 안청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합법화되었고,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가 오랜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었다.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지와 NLD가 승리하여 국회에 등원하면서 미얀마 정치적 자유화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얀마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또한 미얀마의 정치개혁에 따라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미얀마에 대한 교역 관계와 해외투자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출범 이후 환율제 정비와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을 단행하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에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6,000만의 인구가 있어 미얀마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 이후에는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거대한 신흥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경제적 이점 또한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 신흥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국제자본은 개발도상국 중 차기 유망주를 찾고 있는데,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함께 신흥국 중 그 성장 잠재성이 높은 후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Coclanis, 2013). 최근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역시 미얀마의 개방에서 오는 이러한 경제적 기회의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미얀마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신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늘어났다. 그 결과 미얀마는 지난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더불어 한국의 동남아 3대 관심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주요 20대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2년 9월 서울-양곤 직항편이 취항했다. 2012년 한국, 미얀마 양국 정상은 상대 국가를 방문했고, 2013년 6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한국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교역, 투자, 건설·인프라, 에너지, 자원, 인적자원 개발, 농업, 보건의료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 협

력의제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5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하여 양곤 인근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고, 송전망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얀마 시장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과 정부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얀마의 급속한 ‘부상’은 한국의 미얀마 연구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이다. 그 동안 한국에게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인지도를 지닌 나라였고, 연구 역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과 같은 동남아 주요 연구 대상국에 비해 극히 저조했다.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에 없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미얀마 연구의 추이와 특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 연구의 특수성과 최근의 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해 미얀마를 주제로 이루어진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논문, 그리고 단행본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통해 한국의 미얀마 연구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얀마 연구를 먼저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www.riss.kr>)에서 ‘미얀마’와 ‘버마’로 주제어를 입력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검색했다. 미얀마에 대한 학술 단행본은 매우 드물고,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권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한국연구정보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을 걸러내고 필자의 판단 하에 미얀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만을 이용했다. 특히 정책 브리핑이나 시장조사의 성격이 강한 연구들과 미얀마의 역사, 사회문화 환

경의 고려가 없는 기술적 보고서, 기독교 및 불교 선교가 목적인 연구는 제외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그 특성상 특정 주제를 놓고 동남아시아 복수국가를 비교 및 대조하여 기술하는 연구가 많은데, 이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비록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는 하나 독립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없다면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로 취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복수 국가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경우 미얀마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없는 연구로 보고 제외했다. 유사한 이유로 제3국의 미얀마 관련 외교정책(중국과 인도의 대 미얀마 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도 다루지 않았다. 또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구대상인 경우가 있었으나 그 연구주제가 미얀마의 국제이주나 문화의 특이성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적응, 한국의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정책 등과 같이 미얀마가 단순한 사례인 경우로 판단되어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물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이러한 판단은 필자가 각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제목을 보고 내린 것으로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 대상은 그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별도의 문제로 국내에 기반을 둔 연구자의 해외 취득 학위의 문제가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정보서비스는 주로 국내 학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외 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누락된다. 해외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논의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내 학위인 경우에도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 논의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미얀마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의 저자가 모두 미얀마 유학생들이고, 이들은 학위 취득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고 학위 취득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만약 이들이 학위 취득 이후 한국에 남아 한국학계와 교류하면서 의미 있는 미얀마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미얀마 연구공동체에 포함해야 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 '미얀마'와 '버마'의 국명 문제

이 연구에서는 국명 '버마'와 '미얀마'를 '미얀마'로 통일한다. 사실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영문명 'Myanmar'가 서방세계에서 서서히 인정을 받으면서, 용어 선정을 둘러싼 논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88년 발생한 민주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미얀마 군부는 1989년 영문 국명을 'Union of Burma'에서 'Union of Myanmar'로 변경했다. 당시 군부가 제시했던 변경 이유는 버마가 주요 종족인 버마족을 지칭하므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초월적인 이름인 '미얀마'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서방세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문명인 '버마'를 고집했다. 아세안과 중국이 미얀마를 이용하면서 이후 국제사회에서 버마와 미얀마는 그 용어 선택만으로도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정치화된 용어가 되었다. 이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후 국내에서도 '버마'와 '미얀마'가 공존하게 되는데, 1990년대 이후 '버마'는 특히 시민사회에서 신군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본문에서의 분석과 별도로 DBPia에서 1991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버마'를 이용하여 검색했을 경우 국내 저술이 62종이 검색되나 대부분 학술논문이 아닌 기사나 시론이다. 이는 '버마'를 이용한 저술들은 대부분 진보적 매체나 사회비평에서 군사정부에 대한 비평기사를 썼음을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논쟁과 별도로 '미얀마'는 신조어이기 때문에 1989년 이전에 '미얀마'는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1989년 이전에 작성된 국내 연구는 모두 '버마'를 사용했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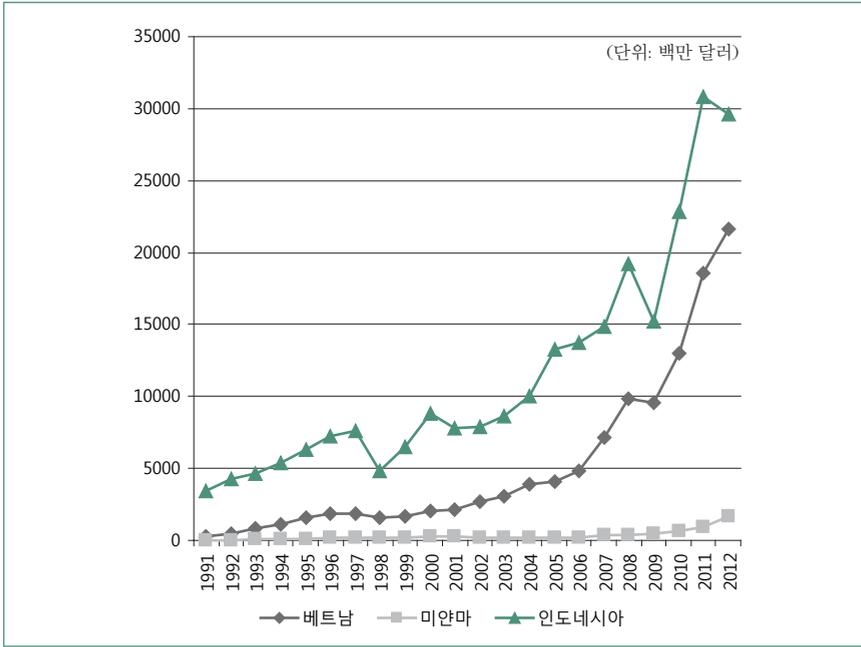
III. 한국의 미얀마 연구 역사

현재 미얀마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학술 연구는 그 동안 매우 저조했다. 이는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으로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이 미미했으며, 한국과 미얀마는 특별한 역사적 접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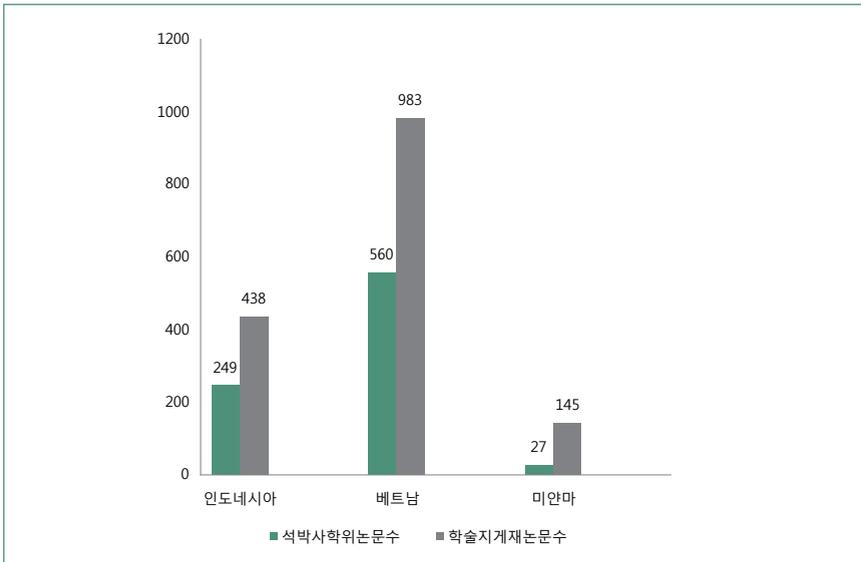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 현황은 한국의 동남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하면 그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액은 300억 달러, 베트남과의 무역액은 220억 달러인데 비해 미얀마와의 무역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하다(그림 1 참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자원부국이며, 도서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다. 베트남의 경우 그 경제적 중요성에 더하여 베트남전쟁과 같이 한국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 요인을 갖고 있다. 결국 긴밀한 양국 간 경제관계나 특별한 역사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 없이 한국에서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연구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얀마 연구의 부진은 단순히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1962년 군부정권 설립 이후 미얀마 연구는 미얀마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정체되었다. 독재정권 치하에서 학문 자유의 억압, 고등교육의 쇠퇴, 그리고 버마식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교류의 제한 등으로 미얀마 전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얀마 국내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1962년 군부집권 이전에 미얀마 연구는 매우 국제화되어 있었다. 20세기 초반과 독립 직후까지 미얀마 연구는 미얀마 학자들과 미얀마에 근거를 둔 서양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식민정부의 관리이자 동남아시아 역사가인 퍼니발(J. S. Furnivall)을 들 수 있다. 퍼니발은 영국 식민정부에 근무하면서 미얀마학회(Burma Research Society)를 조직하고 『미얀마학 저널(*Journal of Burma Research Society*)』을 발간했다. 그러나 1960년 미얀마 군부는 대부분의 서방학자들을 추방했고, 이어진 군부독재와 경제적 쇠퇴로 한때 동남아시아 제일의 수준을 자랑했던 양곤대학교 등 미얀마의 대학들은 서서히 몰락했다. 미얀마의 고립으로 미얀마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인 연구자의 미얀마 현지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국제적으로 미얀마 연구 역시 쇠퇴했다. 또한 1988년 민주주의의 항쟁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대단히 정치화되면서, 특히 미얀마 정치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기도 했다.

한국에서 미얀마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몇몇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인도네시아는 김형준·전제성(2013), 베트남은 이한우(2013), 미얀마는 필자

그림 1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3국 교역량 추이와 국내 연구 비교

다. 1983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발생한 아웅산묘소 폭탄테러 사건은 이후 한국에서 미얀마 연구가 제도화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당시 한국에서 미얀마(당시 버마)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고, 전문 연구자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테러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비 장학생을 양성했고, 그 대표적인 결과로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장식 교수가 일본 오사카외국어대학교에서 미얀마언어학으로 석사, 인도 바나라스힌두대학교에서 역시 미얀마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박장식 교수를 중심으로 1992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미얀마어학과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한국에 미얀마언어와 미얀마 지역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남아의 문화와 예술에 집중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은 한국 학계와 지식인 사회가 미얀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사실 제3세계 일원으로서 미얀마와 한국의 근대사는 유사한 점이 많았다. 두 나라 모두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 1960년대 초 군부쿠데타 그리고 1980년대 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겪었다. 특히 한국이 1986년 이후 민주화되면서 미얀마의 실패한 민주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미얀마 독재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여 1991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석태 외 11인이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미얀마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단행본을 출간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와 반독재 운동, 인권탄압 문제는 이후 한국의 미얀마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국제연대 차원에서 미얀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2011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정부, 기업 부문의 미얀마-한국 교류는 저조했으나, 시민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시론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일반 언론 기고를 통해 그 관심이 꾸준히 표출되었다.

IV. 연구 경향

1. 미얀마를 주제로 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현재 국내에서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연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할 때, 미얀마를 주제로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은 총 6편이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고). 이 중 4편은 국내에서 진행되었으며, 1편은 인도, 마지막 1편은 싱가포르에서 그 학위가 수여되었다. 분야별로는 정치학 논문 3편, 인류학 논문 1편, 언어학 논문 1편과 정치학과 인류학으로 모두 분류될 수 있는 논문 1편으로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제출되었다.

최초의 국내 미얀마 박사학위 논문은 1996년 서울대학교에 제출된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비교 연구: 한국,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길현)이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탈권위주의 체제 전환에 성공한 한국, 니카라과와 국민적 저항을 통해 민주화가 시도되었으나 체제 전환에 실패한 미얀마의 경우를 비교하여, 민주화의 정치적 동향을 권위주의 정권 내부의 정당성 위기와 외부의 체제 전환 압력, 그리고 정치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선택이라는 틀을 통해 분석했다. 이어 국내 두 번째 미얀마 박사학위 논문으로 1998년 김성원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정치사적 관점에서 본 미얀마의 불교와 정치”를 제출했다.

이후 2009년까지 9년 동안 국내에서는 미얀마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2009년 장준영이 “미얀마 신군부와 정치변동: 군부의 정치권력 과 민주화 전망”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그 정치

표 1 국내 주요 미얀마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분야와 제반 정보

분야	학위 수여기관	국가	연도
언어학	바나라스힌두대학교	인도	1995
정치학	서울대학교	한국	1996
정치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1998
인류학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싱가포르	2007
정치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2009
지역학(정치학, 인류학)	부산대학교	한국	2011

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한계로 연구되지 않았던 미얀마 군부의 내부 역학 관계와 그 변화를 주요 인사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지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미얀마 군부정권 유지의 원인을 군부 내적 요인과 군부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군부 외적 요인으로 미얀마의 사회세력과 국제 환경을 고려했다. 장준영은 이후 한국에서 현지어 구사와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을 기반으로 미얀마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제출된 미얀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김진아가 2012년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제출한 “미얀마 껀잉(Kayin)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다. 이 논문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중 하나이자 가장 정치화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독립 이후 최근까지 분리주의 운동을 폈던 껀잉족의 정체성 문제를 역사적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적 시점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연구했다는 특성이 있다. 이 논문은 지역학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종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치학 내지 인류학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미얀마 핵심 연구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장식이 1995년 인도 바나라스힌두대학교에서 “Burmese Phonology and Morphology”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990년대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하고 2000년대에 해외 대학에서 미얀마에 대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싱가포르가 한국의 연구자들을 미얀마와 이어주는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했다. 이상국의 “Integrating Others: A Study of a Border Social System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2007)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상국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의 난민사회를 연구했다. 태국 서부 매솿(Mae Sot)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들은 불확실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국내 미얀마 연구자들에 의한 박사학위 논문은 미얀마의 군부독재와 민주화, 불교, 소수민족 문제, 언어 등 미얀마 지역연구의 주요 주제들을

상당수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인 연구 편수는 국내 미얀마 연구가 아직도 시작 단계이며, 향후 연구의 세분화와 심화가 한국 미얀마 연구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미얀마(당시 버마)에 대한 국내 첫 석사학위 논문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1964년에 제출된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박희주)다. 이후 1996년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양길현)이 등장할 때까지 32년 동안 유세희(1966), 조상호(1967), 이윤재(1968), 김성용(1986), 이병승(1990), 신동력(1996) 등 6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 석사학위 논문들은 모두 미얀마의 정치 및 외교, 사회주의 경제체제 문제를 다루었다. 특이한 것은 1960년대에 4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고 1970년대에는 미얀마 관련 학위논문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1960년대 초 한국과 미얀마의 군부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참여와 미얀마의 비동맹외교 등이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후 1970년대에는 한국-미얀마 관계에 큰 사건이 없었고, 미얀마 역시 군부통치가 큰 위기 없이 지속되어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된 국내 미얀마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은 총 27편이고 이 중 3편이 박사학위 논문, 24편이 석사학위 논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국제관계가 22편으로 81%를 차지하고, 사회문화가 3편, 어문학과 역사 논문이 각각 1편이다. 경영경제나 이공계 전공 논문이 없는 것은 이 글에서 정한 ‘미얀마 지역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영경제, 이공계 논문은 미얀마 연구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 2 미얀마 관련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분야

	편수	%
정치·국제관계	22	81
경영경제	0	0
어문학	1	4
역사	1	4
사회문화	3	11
이공계 기타	0	0
합계	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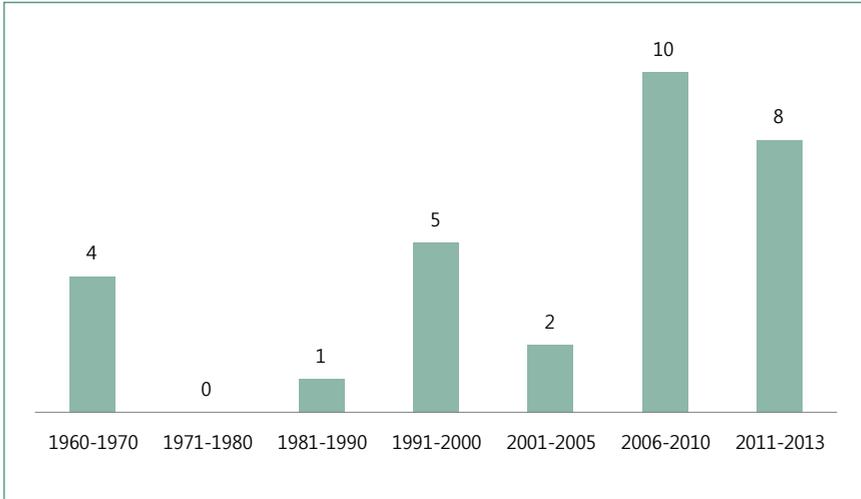


그림 2 미얀마 관련 국내 석·박사논문 제출자 추이

국내 학위논문과 별개로 주요 해외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에 근거를 둔 미얀마 연구자들이 1980년대 말 일본에서 미얀마 어문학으로 제출한 논문들이 있다. 1989년 박장식이 일본 오사카외국어대학교에서 “(The) Voicing Alternation in Burmese Obstruents”라는 언어학 학위 논문을 제출했으며, 역시 현재 부산외대 미얀마어과의 최재현이 “ビルマ ‘キツサニ’文學と作家’ティパニマウニワ’に関する研究[미얀마 킷쌍(Khitsan) 문학과 떼입빵 마웅와(Theippan Maun Wa)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미얀마 문학 분야에 일본 오사카외국어대학교에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박사논문을 포함하여 석·박사 논문의 시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이전에 4편, 1970년대에 1편, 1980년대에 1편으로 매우 저조하다가 1990년대에 5편으로 소폭 증가하고 2000년대에 12편으로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2006년 이후 미얀마 관련 학위논문이 18편으로 전체 논문의 2/3라는 점은 미얀마를 주제로 한 학위 연구가 최근어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총 27편 중 미얀마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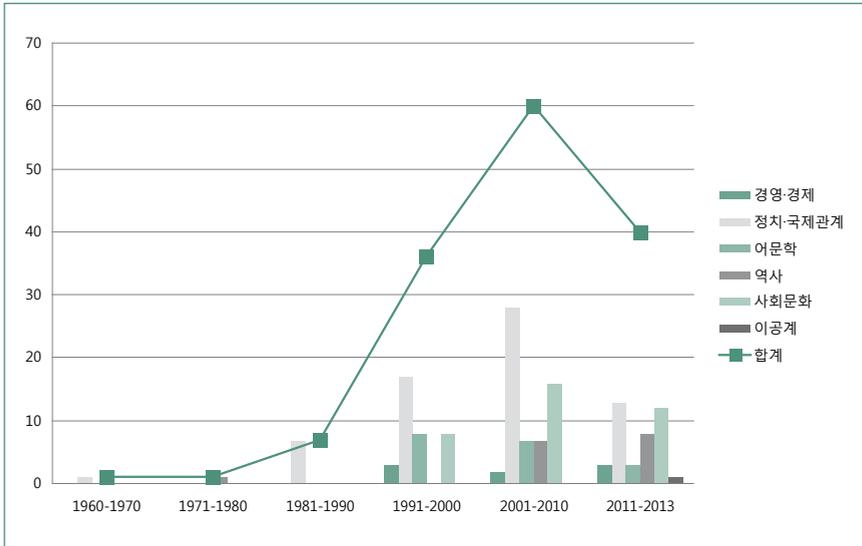
김형준·전제성(2013: 81)은 1990년대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역연구가 유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이 급

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역시 1990년대에 관련 학위논문의 제출이 소폭 늘었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의 부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서 특기할 것은 지역연구가 부상했던 1990년대에 학부를 수학한 일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학하여 미얀마 관련 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이상국(2007)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난민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석사논문에서는 역시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오윤아가 양곤 지역 께잉 공동체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정치학 논문 “Ethnic Consciousness and Allegiance to the State: Weak State, Weak (Ethnic) Society and the Question of Dual Loyalties in Myanmar”(2004)를 제출했다. 이후 2000년대 말에 학위논문이 급증한 것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전후로 미얀마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시기 국내의 미얀마 연구의 확대는 미얀마의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미얀마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지 논문

미얀마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앞서 밝혔듯이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에서 ‘미얀마’와 ‘버마’를 표제어로 검색한 후 중복 게재 논문, 뉴스 브리핑 등을 제외하고 주제와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총 145건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6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정연구소에서 발간한 『해외문제』 4호에 이호재가 “버마군부의 성장과 정치”를 게재한 것이 국내 미얀마 관련 최초의 학술지 논문이다. 이는 1962년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6년만의 연구였고, 이후 한국의 미얀마 연구에서 미얀마 군부정치와 민주화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번째 논문은 12년 후인 1980년 단국대학교에서 발간한 『동양학』 10호에 “식민지시대의 버마와 월남에서 전개된 반식민주의운동의 비교연구”라는 유인선의 논문이다. 세 번째 논문은 1983년 발생한 아웅산묘지 폭탄테러 사건을 반영하여 김찬규가 『사법행정』에 게재한 “버마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이다.

미얀마에 대한 학술지 논문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9편에 불과하다가 1990년대 들어 36편으로 그 수가 급증했다(그림 3 참고). 1990년대 미얀마 연구의



	경영·경제	정치·국제관계	어문학	역사	사회문화	이공계	합계
1960~1970	0	1	0	0	0	0	1
1971~1980	0	0	0	1	0	0	1
1981~1990	0	7	0	0	0	0	7
1991~2000	3	17	8	0	8	0	36
2001~2010	2	28	7	7	16	0	60
2011~2013	3	13	3	8	12	1	40
총계	8	66	18	16	36	1	145

자료: www.riss.kr

그림 3 미얀마를 주제로 한 분야별 학술지 논문의 시기별 추이

확대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8년 민주화 항쟁과 아웅산 수지의 등장,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전으로 인한 군부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관심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편이 발표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불과 3년이 못되는 기간에 40편이 발표되어 미얀마 학술지 게재 논문 발표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분야별로는 1960년 이후 분석 대상 시기에서 정치외교 분야 논문이 66편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군부독재와 민주화, 중국

과의 관계 등에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았고, 또한 언어 구사와 현지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학보다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정치외교 분야 연구가 더 용이했던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많은 학술논문은 사회 분야(36편, 25%)이고, 그 뒤를 이어 언어학(18편, 12%), 역사학(11편, 11%), 이공계(1편, 1%)의 순서다.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추이는 1990년대까지 정치외교 분야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다가 이후 종교, 문화, 인류학 등 사회문화 분야 연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의 기간에는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논문이 각각 13편, 12편으로 사회문화 분야 연구의 발전이 관찰된다. 향후 미얀마 연구 저변이 확대되고 학문 인프라가 강화된다면 사회문화 연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얀마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연구』(17편), 『동남아연구』(11편), 『아시아지역연구』(11편), 『수완나부미』(10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아시아지역연구』와 『수완나부미』는 각각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와 동남아시아원에서 발행하는 저널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학과의 인력 및 자원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한국태국학회논총』에 6편의 미얀마 관련 논문이 실렸다. 이는 단독 미얀마 저널이 없는 상태에서 미얀마 연구자들이 인근학계인 태국학계의 학술지를 창구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개별 연구자들을 보면 가장 많은 출판물을 낸 연구자는 최재현(19편), 김성원(15편), 박장식(15편), 장준영(15편)으로 모두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학과에 재직하고 있거나 학부과정을 수학한 연구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를 모두 합하면 64편으로 전체 150편의 43%를 차지한다. 이들 뒤를 양길현(7편), 김인아(5편), 이상국(5편), 묘우(Myoo Oo, 5편)가 있고 있는데, 김인아와 묘우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원 HK 교수다. 이는 언어와 지역 이해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학과가 국내 미얀마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 연구가 소수 연구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저변이 좁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미얀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향후 과제로 꼽을 수 있다.

3. 미얀마 관련 단행본과 연구비 지원

정부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발행한 각종 정책보고서와 조사보고서, 체험기를 제외하고 미얀마 관련 학술 분야 단행본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아직 대부분 개설서다(표 3 참고). 독립된 연구 저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1991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와 2012년에 발행된 장준영의 『미얀마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그리고 2013년에 발행된 장준영의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다.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식 사회주의의 이해, 버마의 정치구조와 과정, 버마의 경제와 사회, 버마의 대외관계의 총 4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인의 연구진이 각각의 장을 맡아 기술하고 있다. 버마 사회주의의 역사, 버마 공산주의 운동, 버마의 토지개혁과 농업 문제, 버마와 한국, 버마와 미·일·중의 관계 등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2012년 발행된 장준영의 『미얀마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는 비록 정책연구원에서 출판되기는 했으나 정책연구가 아닌 기초연구다.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민간정부, 군부정권, 신군부, 신정부 시기별로 외교정책과 대외 관계를 비동맹 중립외교의 틀로 분석했다. 2013년 발행된 장준영의 『미얀마

표 3 미얀마 관련 주요 학술 단행본

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한석태 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미얀마학 입문	김성원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미얀마 왕조사	김성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미얀마(1999, 2005)	양승윤 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미얀마의 종교와 사회	김성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미얀마의 이해	김성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미얀마 왕조사	김성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번역서)	장준영	높이깊이	2011
미얀마의 이해(2002, 2006, 2011)	김성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장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	장준영	지식교양	2013

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 과정과 과제를 크게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물이다.

이외에도 장준영이 2011년 번역하여 출판한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은 데이비드 슈타인버그(David I. Steinberg)가 저술한 *Burma/Myanm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2009)의 번역서로 미얀마에 대한 해외저술 번역의 드문 예다. 원저는 미얀마 연구의 고전이라기보다는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현대정치사와 정치, 국제관계 이슈를 소개한 책으로, 그 번역본은 국내에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단행본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설서 이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둔 단행본은 매우 드물고, 그 연구주제도 미얀마의 근대정치 또는 최근 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미얀마 연구의 역사가 짧고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 미얀마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관련 연구 지원비 추이를 살펴본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검색결과에서 인적자원 양성 및 ODA 사업 등을 제외하고 학술 연구만을 가려내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를 주제로 한 연구는 총 24건의 연구비 수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고). 기간별로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후반에 몰려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학과 설치 이후 소속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과, 2000년대 말 미얀마의 개혁·개방으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 분야를 보면 정치학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어문학이 5건, 경제경영이 3건, 이공계가 3건, 사회문화가 2건이다. 연구비 지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다음으로 3건, 포스코청암재단이 2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얀마 관련 연구비 수혜 연도별 수혜 현황(1994~2013)¹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건수	1	1	2	2	2	0	0	2	0	0	0	0	0	0	1	1	4	2	4	2	24

V. 맺음말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이 베트남에 대한 한국 연구의 확대에 기여했듯이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개혁·개방이 한국의 미얀마 연구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연구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쳐줄 연구 저변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전환기에 선 한국의 미얀마 연구의 그간 동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한국의 주요 지역연구 분야로서 미얀마 연구가 내실 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한국의 미얀마 연구는 같은 동남아시아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관심 속에 극히 작은 규모의 핵심 연구자 집단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 수행해왔다. 미얀마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단행본을 통해 미얀마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미얀마 연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2000년대 말 미얀마의 정치개혁을 전후하여 연구 성과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측면에서 한국의 미얀마 연구는 인도네시아 연구나 베트남 연구에 비해서는 대단히 저조하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도 정치·국제관계와 같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인문학 분야인 언어학, 역사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다. 연구자 분포에서도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미얀마 어문학을 중점으로 하는 학부가 국내에 단 하나만이 존재하고, 그 동안 미얀마 연구의 연구 수요 부

¹ 연구비 수혜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세미나(2013. 11. 22)에서 창원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서 차용했다. 해당 논문은 『아시아리뷰』 제3권 2호(2013년)에 게재될 예정이다.

족으로 학문 후속세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얀마 연구에서는 기존의 핵심 연구자들과 미얀마 비전공자이지만 주제나 사안에 따라 미얀마를 연구하게 되는 사례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제출되는 미얀마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의 상당수가 한국에 유학하는 미얀마인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그 출발이 늦어지면서, 한국의 미얀마 연구는 양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연구의 경우 그 동안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이제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반면, 미얀마 연구는 최근들어서 비로소 미얀마 연구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나 미얀마의 산업, 비즈니스 관련 응용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미얀마 연구자의 풀이 극히 좁기 때문에 최근 국내 연구에는 미얀마 비전공자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적 성장 없이 연구의 외연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국내 미얀마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미얀마 연구의 역량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얀마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왔듯이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에만 존재하는 미얀마 어문학의 학부 과정을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과 설치 여부가 한국의 현실에서 해당 지역연구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에 중요하다면, 현재와 같이 국내 유일의 미얀마어학과가 지방대학 한 곳에만 존재하여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용. 1986. “버마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발전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원. 1998. “정치사적 관점에서 본 미얀마의 불교와 정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인아. 2011. “미얀마 께잉(Kayin)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찬규. 1983. “버마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 『사법행정』 24권 11호.
- 김형준 · 전제성. 2013.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아시아리뷰』 2권 1호, 73-108.
- 박희주. 1964.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동형. 1996.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1988년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성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길현. 1996.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비교 연구: 한국,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2. 『버마 그리고 미얀마: 네윈과 아웅산 수지』, 서울: 오름.
- 유세희. 1966. “아세아 후진국에 있어서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제문제점: 특히 버마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인선. 1980. “식민지시대의 버마와 월남에서 전개된 반식민주의운동의 비교연구.” 『동양학』 10권 8호, 185-205.
- 이병승. 1990. “인도와 버마의 국가자본주의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재. 1968. “버마의 중립외교: 1948~1951.”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한우. 2013.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아시아리뷰』 2권 1호, 109-158.
- 이호재. 1968. “버마군부의 성장과 정치.” 『해외문제』 4권 1호, 91-117.
- 장준영. 2009. “미얀마 신군부와 정치변동: 군부의 정치권력과 민주화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2. 『미얀마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3.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 서울: 지식과 교양.

- 조상호. 1967. “공산권의 대외원조정책에 관한 연구: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실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현. 1988. “ビルマの‘キツサニ’文學と作家‘ティパニマウニワ’に關する研究[미얀마 킷쌍(Khitsan) 문학과 폐입뽕 마웅와(Theippan Maun Wa)에 관한 연구].” 오사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석태 외. 1991.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Coclanis, Peter A. 2013. “Asia’s Next Tigers? Burma, the Philippines, and Sri Lanka.” *World Affairs* (March/April).
- Lee, Sang Kook. 2007. “Integrating Others: A Study of a Border Social System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Oh, Yoon Ah. 2004. “Ethnic Consciousness and Allegiance to the State: Weak State, Weak (Ethnic) Society and the Question of Dual Loyalties in Myanmar.” M.A.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Park, Jang Sik. 1989. “(The)Voicing Alternation in Burmese Obstruents.” M.A. Thesis. Osak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_____. 1995. “Burmese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Banaras Hindu University.
- Steinberg, David I. 2009. *Burma/Myanm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Myanmar Studies in Korea: Trends and Challenges

Yoon Ah O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Korea, Myanmar studies has traditionally been one of the most underdeveloped fields of Southeast Asian studies, due to its short history, limited demands for research and training, and inadequate research environment. However, interest toward Myanmar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recent years, together with the rapi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Myanmar.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Myanmar studies in Korea, and identifies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rends in graduate education, journal articles, book publications, and research gran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can be made. First, the overall size of research output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recent years, yet it still remains very small in comparison to other fields, such as Indonesian or Vietnamese studies. Second, political science has been the dominant subfield within Myanmar studies in Korea, although sociology and anthropology have begun to catch up over the past few years. Finally, it has been also found that, because only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have been carrying the load, their works have been overrepresented in the field. Greater institutional attention and support is needed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s for Myanmar-related research and training and to do so *without* compromising research quality.

Keywords | Myanmar, Korea, area studies, Myanmar's reform